### 경북 아진산업 '전남도 수산물 단체급식 협력기업' 1호 라라랜드 심경희 대표 등 호남대에 장학금 1500만원

전남도가 최근수산물 소비 위축과 이에 따른 어업인 위 기를 해소하기 위해 새 판로 개척 일환으로 현대자동차 부 품업체인 경북의 아진산업 (주)을 '전남도 수산물 단체 급식 협력기업'으로 첫 지정 〈사진〉

이날 지정식에는 임직원 600여 명이 전남 수산물을 구 매해 만든 전복스테이크, 곱 창김 쌈밥, 천일염과 전남 수 산물로 만든 젓갈로 구성된 식단으로 단체식사를 하며 만 족감을 표했다.

단체급식 협력기업 1호 지정은 노블레스 오 블리주를 실천하는 최고경영자(CEO)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가 지난 9월 전남도의 수산물 판 촉 요청에 어려운 어민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 이든 적극 돕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뤄졌다. 당 시 서 대표는 구내식당 수산물 메뉴와 명절 임 직원·협력사 선물, 대구·경북지역 판촉활동 지 원 등을 약속했다.



아진산업은 계열사 포함 임직원 약 3200명, 연매출 1조 원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회사다. 2014년부터 명절 선물과 협력사 답례품 등으 로 전남 수산물 전복, 김, 고등어 등 약 70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구매했다. 이번 단체급식 협 력기업 지정으로 단체급식과 명절 선물 등으로 연 10억~12억원의 전남 수산물 소비 효과가 기 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외식키움장학금

금 1,500만원

심경희 LALA랜드 화정점, 용봉점

LALA랜드

호남대학교 외식조리과학과(학과장 김영 균)는 16일 현명관 6층에서 LA갈비 전문점인 심경희 라라랜드 화정점 심경희 대표 등에게 '외식키움 장학금'을 기탁받았다. 〈사진〉

이날 심 대표는 400만원을 내놓았으며 호남 대 동문(2011학번)이자 심 대표의 아들인 운 암점 박문수 대표가 800만원, 이종만 용봉점 대표가 3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장학금을 기 탁했다.

박문수 대표는 2017년 창업교육센터 대표 프 로그램인 창업동아리와 창업아카데미 창업캠 프를 이수한 뒤 창업실전자금을 지원 받아 재 학중 동명동에 파쿠요루를 창업했고 현재 파쿠 야와 라라랜드까지 3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올 현재 파쿠야 7개 지점, 라라랜드 2개 지점을 운영중이며 12월에는 라라랜드 서울점 을 오픈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한솔커머스, 남도라이브 서비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광주 청년창업지 원센터 입주기업 '솔디자 인플랜,한솔커머스'(대표 김한솔·사진·이하 한솔커 머스)는 최근 남도의 신선 한 농수산 물과 가공식품・ 밀키트 등 지역 식품 판로 를 확대하기 위해 '남도라 이브'서비스를 개시했다.

한솔커머스는 온라인 판 매 활성화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 영상 제작 지원, 키 오스크 솔루션, 홈페이지 제작 등 사업운영에 필요

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한솔커머스는 우수농수산물 을 전국의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마케팅 활동 을 시작했다.

김한솔 대표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청 년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최종적인 꿈"이 라고 전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봉사동호회 독거노인 등 10세대 연탄 배달



광주시교육청 봉사동호회가 지난 18일 서구 광천동 일대 독거 노인 등 10세대에 세대당 연탄 300장씩 총 3000장을 구입·배 달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는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학부모, 학생 등 34명이 참여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 광주자연과학고,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최우수상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교 장 최범태 )학생들이 최근 '2023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 램(YIP)' 아이디어 공개 오디 션에서 최우수상(특허청장 〈사진〉 상)을 수상했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 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프 로그램은 우수 발명 아이디어 를 가진 학생들을 선정하고 컨 설팅을 통해 청소년 발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자연과학

고 '자연스런 발명팀' (김동한·김수현·유은택) 은 '침수 시 맨홀 위치 확인 부표'를 선보였다.

팀장 김동한 군은 "우리 지역 폭우로 침수가 발생했을 때 흙탕물로 가려진 곳을 위험하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 고 팀원들과 침수 위험을 알릴 방법에 대해 고 민하면서 아이디어를 다듬어 갔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대학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벽화 그리기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18일 신안군 압해읍에서 57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썸타러 가볼래?'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행(재) 55 도시의 기록	00 혼례대첩(재)	15 헬로키즈 과학교실(재) 30 주니토니이야기 45 팬티히어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크특선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시장의 품격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집 금송아지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꿀잼 영화가 좋다 베스트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3 55 2시 뉴스 외전	25 도시락 스페셜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뉴스브리핑
3	00 특집 다큐 로드 투 테이블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5 반지의 비밀일기 2(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어린이 동물티비(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00 한국인의 밥상(재)	10 트로트 클라쓰 3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4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50 우아한 제국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3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한민국: 중국〉		00 KBC 8 뉴스 30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예선
9	00 KBS 뉴스 9		00 PD수첩	· 〈대한민국:중국〉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00 심야괴담회	
11	30 영상앨범 산(재)	00 슈퍼맨이 돌아왔다	20 100분토론	00 손대면 핫플 - 동네멋집
12	00 KBS네트워크특선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 50 생활의 발견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클래식 토크	45 TV예술무대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05:00 왕초보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7:00 뿡뿡빵빵 부부맨

07:30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

08:50 샤샤앤 마일로

09:20 인간과 바다

06:10 세계테마기행

07:15 빅 블루

07: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최강우주소방대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35 뽀롱뽀롱 뽀로로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 EBS<sub>1</sub>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귀하신 몸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5:15 강신주의 장자 수업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페파피그 17:10 오구오구 내 새끼

17:2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17:25 뿡뿡빵빵 부부맨(재)

17:40 그린조끼 구조대 17:55 한글용사 아이야(재)

18:10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8:40 EBS 뉴스

19:00 한국의 둘레길

19:20 고향민국 19:50 극한직업

20:40 세계테마기행

〈타이완이 좋다! -르웨탄에서 아리샨까지〉

21:35 한국기행

〈가을 채우다 2부 달콤한 곳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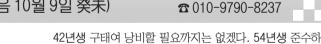
21:55 EBS 다큐프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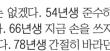
22:50 건축탐구 - 집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1일 (음 10월 9일 癸未)







36년생 예상대로라면 순기능을 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48년생 필요에 따라서는 연기자가 될 수도 있어야겠다. 60 년생 체면이나 허욕을 버리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 다. 72년생 여러 가지를 견문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갖되 선 택은 신중히 하라. 84년생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96년 생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2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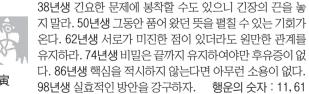


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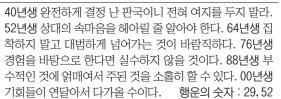
辰

巳

37년생 번거롭더라도 그때그때 확인하는 습관이 실수를 줄 여 줄 것이다. 49년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노 파심은 버려도 되느니라. 61년생 고생해 놓고 남 좋은 일만 시킨다. 73년생 겉치레는 의미가 없으니 진정한 실속을 찾 아라. 85년생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자. 97년생 본질 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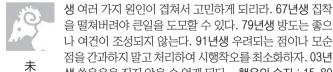
39년생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리라. 51년생 성사될 수 있 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니라. 63년생 도움과 관심이 모아져 서 길사가 꽃핀다. 75년생 조정해야만 할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87년생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니 마음을 비우자. 99년생 상당 기간의 소강 상태를 아우르는 수습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45,93



41년생 넓은 마당으로 나가리라. 53년생 핵심적 가치가 충 분히 반영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65년생 자세히 들여다 보 면 미흡한 점을 찾게 될 것이다. 77년생 모아서 한꺼번에 처 리함이 훨씬 나을 것이다. 89년생 밀물처럼 밀려 왔다가 썰 물처럼 빠져 나갈 것이다. 01년생 시의적절한 운로이니 활 동 반경을 넓히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3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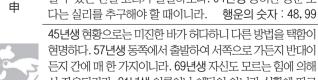


지 않는다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66년생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수습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78년생 간절히 바라던 일이 궁극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느니라. 90년생 상대의 깊 은 마음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02년생 새로운 국면으 로의 전환을 위한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49,66 43년생 미련 없이 비운다면 머지않아 채워질 것이다. 55년



을 떨쳐버려야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 79년생 방도는 좋으 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 91년생 우려되는 점이나 모순 점을 간과하지 말고 처리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 03년 생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행운의 숫자: 15,80 44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발단이 될 것이다. 56년생 중대 고비를 넘기는 분수령이 되리라. 68년생 번거로움을 차치하 고 솔선수범한다면 효과는 배가 되리라. 80년생 최선을 다 해야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92년생 상호 간에 소통

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절실하도다. 04년생 공허한 명분 보



酉

戌

45년생 현황으로는 미진한 바가 허다하니 다른 방법을 택함이 현명하다. 57년생 동쪽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가든지 반대이 든지 간에 매 한 가지이니라. 69년생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의해 서 좌우되리라. 81년생 이론이나 예단이 아니라 실황에 따르

